

李朝後期 宮中女舞服에 관한 研究

—純祖 이후를 중심으로—

李 柱 媛

I. 序 言	
II. 宮中舞踊의 歷史的 背景	
1. 宮中舞踊의 概要	
2. 宮中舞踊의 傳承	
III. 宮中女舞服의 研究	
1. 各 舞踊의 服飾	
(1) 一般女舞의 服飾	(3) 劍器舞의 服飾
(2) 春鶯囀의 服飾	(4) 船遊樂執事의 服飾
	(5) 舞山香의 服飾
	(6) 童妓의 服飾
	2. 服飾別 研究
	(1) 冠 (2) 服 (3) 帶
	(4) 靴鞋 (5) 기타
	IV. 結 言

I. 序 言

한국의 전통무용은 宮中舞踊, 儀式舞踊, 新舞踊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궁중무용은 일명 呈才라고도 하는데 이는 才操를 드린다는 뜻으로 宮中에서 잔치 때에 하던 춤과 노래의 演藝를 말한다. 궁중무용은 신라시대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이조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50여종에 달했으며 이들은 構成·按舞 등 內的·外的으로 더욱 다듬어져 예술적인 무용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전래해 온 女樂에 대한 시비는 세종조에 이르러 새로운 呈才舞童을 낳게 했고 內宴¹⁾은 女伶이, 外宴²⁾은 舞童이 각각 전습하여 거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女樂개발에 대한 논란은 이조 500년간을 통하여 끊이지 않았다. 이는 女樂에서 받을 수 있는 雜戲的인 느낌에서라기 보다는 숭불사상에 기인한 여성관 및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궁중무용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服飾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근래 궁중무용에 관한 연구는 무용학자들에 의해 많이 되고 있으나 舞服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 하겠다.

궁중무용은 특히 이조 후기 순조조를 고비로 해서 정리되고 그 종목도 대폭 증대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조 후기, 그 중에서도 순조 이후의 宮中女舞服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여 보다 확실한 연구를 하기 위해 순조 29년부터 고종 광무 6년 사이의 進饌·進宴儀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변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II. 宮中舞踊의 歷史的 背景

1. 宮中舞踊의 概要

궁중무용은 국가기관에 예속되어서 장구한 세

1) 內宴을 위해 베푸는 향연

2) 外宴을 위해 베푸는 향연

월동안 성장 발달된 무용으로, 나라의 慶事·궁중의 饗宴·外國國賓을 위한 宴會·王侯將相等의 玩賞用으로 주어졌으며, 地方官衙에까지 전파되었고, 민간대중과는 별로 관계없이 近年까지 전해져 왔다.

樂學軌範에 의하면 궁중무용은 唐樂呈才³⁾와 鄉樂呈才⁴⁾로 구분된다. 이 두 계통의 무용이 서로 다른 점은 唐樂呈才에는 竹竿子⁵⁾가 있고 唱詞가 漢文으로 되어 있는데 鄉樂呈才에는 竹竿子⁵⁾가 없고 唱詞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조 후기 순조조에 이르러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각 구성요소가 변모동화되어서 당·향악정재가 혼합된 새로운 양상의 呈才가 대두되어 竹竿子의 有無에 관계없이 無員의 동작이 거의 같고 漢文 唱詞가 보편화되었다.⁶⁾

이 궁중무용은 궁중의 제한된 공간과 여건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어지기 때문에 몸가짐이나 동작이 활발할 수가 없으므로 춤사위⁷⁾가 우아하고 선이 고우며 몸가짐이 바르고 동작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⁸⁾

2. 宮中舞蹈의 傳承

이조시대 궁중무용의 傳承過程을 呈才의 창제 및 소멸을 기준으로 하면 4기로 나눌 수 있다.

(1) 태조조부터 성종조까지는 宮中呈才의 創定期라 하겠고,

(2) 연산군조부터 인조조까지는 宮中呈才의 衰頹期라 하겠으며,

(3) 효종조부터 정조조까지는 宮中呈才의 再生期라 하겠고,

(4) 순조조부터 고종조까지는 宮中呈才의 全

盛期라 하겠다.⁹⁾

이 중에서 특히 순조조부터 고종조까지의 약 100년간에는 가장 많은 궁중무용이 연출되었고 본논문도 순조조 이후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했으므로 이 시기의 傳承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순조원년(1801)에는 辛酉邪獄¹⁰⁾의 발생으로 樂政이 중단되었다가 同 9년 6월 진찬에는 음악만 연주되었을 뿐 呈才는 전혀 거행되지 않았고¹¹⁾ 同 27년 9월 進爵에서도 역시 呈才는 전혀 거행되지 않았다.¹²⁾

그 후 呈才에 특출한 金昌河 典樂과 당시 왕을 대신하여 政事를 보살피던 王世子(翼宗)에 의해 呈才樂章이 많이 창제됨으로써 이듬해부터는 많은 呈才가 거행되었다.

同 28년 2월 진작에서는 內外宴 모두 舞童이 정진했으며¹³⁾ 同년 6월 진작에서는 內外宴 모두 新製呈才들로 舞童이 정진했다.¹⁴⁾

그러나 同 29년 2월 진찬에서는 內宴에 女樂을 쓰게 되어 17개의 女伶呈才가 거행되었으며, 同년 6월 진찬에서는 外宴만 있었기에 舞童呈才만 거행되었다. 이로써 순조 28, 29년 동안에 內外宴에 거행된 모든 呈才의 수는 40개에 달한 것으로 보아 궁중무용의 最絶頂期라 하겠다.

그후 현종조 이후 고종조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순조조에서 전승된 呈才에 거의 국한되었으나 고종 말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모든 呈才까지 再演됨으로써 가장 많은 呈才가 병설되었다. 특히 고종 광무 6년 진연에서는 舞鼓·拋毬樂·劔器舞를 雙으로 하여 좌우 2대씩 진설함으로써 화려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

순조 29년 진찬부터 고종 광무 6년 진연까지

3) 중국 송나라에서 전래하여 그 영향을 받았거나 改作된 무용

4) 우리나라 본래의 전통적인 무용

5) ① 儀物의 한종류 ② 竹竿子를 든 舞員인 奉竹竿子의 줄임말

6) 성경린, 한국전통무용, 一志社, 1979, p. 55.

7) 舞作을 일컫는 말

8) 김은이, 조선궁중정재복식과 의물에 관한 연구, 무용한국 11권 5호, 1978, p. 118.

9) 한옥희, 조선궁중정재에 관한 연구, 무용한국 12권 6호, 1979, p. 84.

10) 천주교도들을 학살한 사건

11) 순조 己巳(1809), 혜경궁행찬의궤 권 1, 의주條

12) 순조 丁亥(1827), 진작정례의궤 권 1, 의주條

13) 순조 戊子(1828), 진작의궤 권 1, 의주條

14) 上揭書, 附編 의주條

<표 1> 각 儀軌에 나타난 宮中女舞의 종류

儀軌名			己丑進饌 (순조29)	戊申進饌 (현종14)	戊辰進饌 (고종 5)	丁丑進饌 (고종14)	丁亥進饌 (고종24)	壬辰進饌 (고종29)	辛丑進饌 (고종광무 5)	辛丑進宴 (고종광무 5)	壬寅進宴 (고종광무 6)
牙	拍	舞	○	○		○	○				○
響	欽	舞	○	○			○				
壽	延	長	○			○	○	○	○	○	○
尖	袖	舞	○				○		○		
舞		鼓	○	○	○	○	○	○	○	○	○
拋	毬	樂	○	○	○	○	○	○	○	○	○
慶	豐	圖		○				○		○	○
萬	壽	舞						○		○	○
獻	天	花						○		○	○
寶	相	舞	○	○	○	○	○	○	○	○	○
響	鈴	舞		○	○	○	○	○	○	○	○
沈	香	春						○			
蓮	花 臺	舞	○			○	○		○		○
春	鶯	囀	○	○		○	○	○	○	○	○
疊	勝	舞						○		○	
催	花	舞						○			
佳人	剪 牧	丹	○	○	○	○	○	○	○	○	○
舞	山	香					○	○			
夢	金	尺	○		○	○	○	○	○	○	○
長生	寶宴之	舞	○	○ 長春寶宴之舞		○	○	○	○	○	○
獻	仙	桃	○	○	○	○	○	○	○	○	○
荷	皇	恩	○	○	○	○	○	○	○	○	○
劍	器	舞	○	○	○	○	○	○	○	○	○
船	遊	樂	○	○	○	○	○	○	○	○	○
五	羊	仙	○				○	○			
演	百福之	舞					○	○		○	○
舞	導	舞									○
帝	壽	昌						○		○	○
四	仙	舞						○		○	○
關	東	舞		○							
鳳	來	儀									○
六	花	隊									○

의 宮中女舞를 각종 儀軌에서 찾아보면 <표1>과 같다.

呈才舞圖笏記¹⁵⁾에는 총 38개의 궁중무용이 보이나 여기서는 순조 29년부터 고종말까지 內宴에서 거행된 총 34개 중 處容舞와 鶴舞를 제외한 순수한 女舞 32개만을 택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Ⅲ. 宮中女舞服의 研究

女舞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종류의 服飾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32개의 女舞 중에서 (1) 春鶯囀 (2) 劍器舞 (3) 舞山香의 服飾이 각각 다르고, (4) 船遊樂에서는 執事의 服飾이 다른 舞妓들과 다르며, (5) 또한 童妓의 服飾이 다르고, (6) 나머지 28개의 女舞와 船遊樂의 一般舞妓의 服飾은 동일하다.

특히 모든 舞妓들의 舞服은 妓女의 平服처럼 인 치마 저고리 위에 입었을 것이며, 이 저고리는 平安監司歡迎圖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窄袖形의 삼희장저고리¹⁶⁾일 것이다.

15) 고종 癸巳(1893), 국립국악원 소장

1. 各舞蹈의 服飾

(1) 一般女舞의 服飾

內宴女舞 중에서 春鶯囀, 劔器舞, 舞山香, 船遊樂에서는 執事를 제외한 나머지 舞妓들의 춤을 통틀어 편의상 一般女舞라 칭하겠다. 즉, 牙拍舞, 響鈸舞, 壽延長, 尖袖舞, 舞鼓, 拋毬樂, 慶豐圖, 萬壽舞, 獻天花, 寶相舞, 響鈴舞, 沈香春, 蓮花臺舞, 疊勝舞, 催花舞, 佳人剪牡丹, 夢金尺, 長生寶宴之舞, 獻仙桃, 荷皇恩, 五羊仙, 演百福之舞, 船遊樂, 舞尋舞, 帝壽昌, 四仙舞, 關東舞, 鳳來儀, 六花隊 등의 一般女舞는 呈才의 수도 많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舞妓의 수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들의 服飾이 곧 이 시대의 宮中女舞의 대표적인 服飾을 말해주겠다.

이들은 <圖 1-1>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平服차림에 花冠을 쓰고 紅綃裳과 黃綃衫(綠綃衫)을 입은 위로 繡帶를 매었으며 五色汗衫을 끼우고 草綠鞋를 신었다. 이 차림은 一般女伶들과도 같으며 舞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儀物이나 樂器를 들었다.

(2) 春鶯囀의 服飾

이 춤은 순조의 世子 翼宗이 純宗肅皇后의 寶齡 40세를 경축하기 위하여 지은 것¹⁷⁾으로 1인이 추는 獨舞이다.

이의 服飾으로는 平服차림에 花冠을 쓰고 紅綃裳과 黃綃衫을 입은 위로 紅繡帶를 매었으며 臂鞵를 차고 五色汗衫을 끼었으며 어깨에 霞帔를 두르고 飛頭履를 신었다. <圖 1-2>

(3) 劔器舞의 服飾

劔器舞는 일명 劔舞 또는 黃昌郎舞라고도 한다. 원래 이 춤은 7세의 어린 신라소년 黃昌郎이 나라를 위해 敵國인 백제에 들어가 劔舞로 이름을 날리자 백제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추게 했는데 황창랑이 검무를 추다가 드디어 백제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또한 그도 잡혀 죽었기 때문에 신라사람들이 그의 忠魂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용모와 닮은 假面을 만들어 쓰고 그의 춤을 모방하여 추게 되었다¹⁸⁾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 武舞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劔器舞는 민간에서 假面舞로 演戲되기 시작하다가 궁중에 들어가면서 假面이 없어지고 女伶에 의해 이조말까지 전승되어 온 듯하다.

이들의 服飾으로는 戰笠을 쓰고 金香挾袖 위로 掛子를 입고 藍戰帶를 띠었으며 양손에 舞劔을 들었다. <圖 1-3> 이들도 일반 舞妓와 같이 草綠鞋를 신었을 것이다.

(4) 船遊樂 執事の 服飾

船遊樂이란 彩船을 끌고 배 떠나는 정경을 그린 춤으로서 2명의 童妓는 닢과 돛을 잡으면 나머지 女伶들은 2명의 執事の 行船令에 따라 배를 끌게 된다. 여기에서는 나머지 女伶들의 服飾과 다른 執事の 服飾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이들 執事들은 朱笠을 쓰고 挾袖를 입은 위로 貼裏(天翼)를 입고 眞紅廣帶를 띠었으며 水靴子를 신고 등에는 筒筒 양손에는 環刀와 藤鞭를 들고 있다. 이것은 武官의 服飾과도 같다. <圖 1-4>

(5) 舞山香의 服飾

舞山香은 翼宗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玳瑁盤을 놓고 1인이 추는 獨舞로서 春鶯囀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의 服飾으로는 春鶯囀에서와 같은 花冠을 쓰고 紅窄袖衣를 입은 위로 草綠掛子를 입고 金詞子를 두르고 藍戰帶를 띠었으며 五色汗衫을 끼우고 紅繡鞋를 신었다. <圖 1-5>

(6) 童妓의 服飾

여러 儀軌의 呈才圖를 보면 童妓는 3개의 무용에 참여하고 있다. 즉 蓮花臺舞에 2명, 船遊樂에 2명, 그리고 鶴舞에서 연꽃 속에 2명의 童妓가 보인다.

이들의 服飾을 보면 紅綃襪裙과 紅羅裳을 입은 위에 丹衣를 입고 金花羅帶를 띠었으며 汗衫을 끼우고 繡草鞋를 신었다. 이러한 服飾은 3개의 무용에 참여한 童妓가 모두 같았는데 다만 서로 다른 것은 冠이다.

蓮花臺舞의 童妓는 高宗 24년 진찬까지는 蛤笠을 썼으나 <圖 1-1> 그 이후는 蓮花冠을 썼다.

16) 이주원, 평안감사 환영도의 복식고찰, 服飾 4호, 1981, p. 53.

17) 성경린, 前揭書, p. 72.

18) 上揭書,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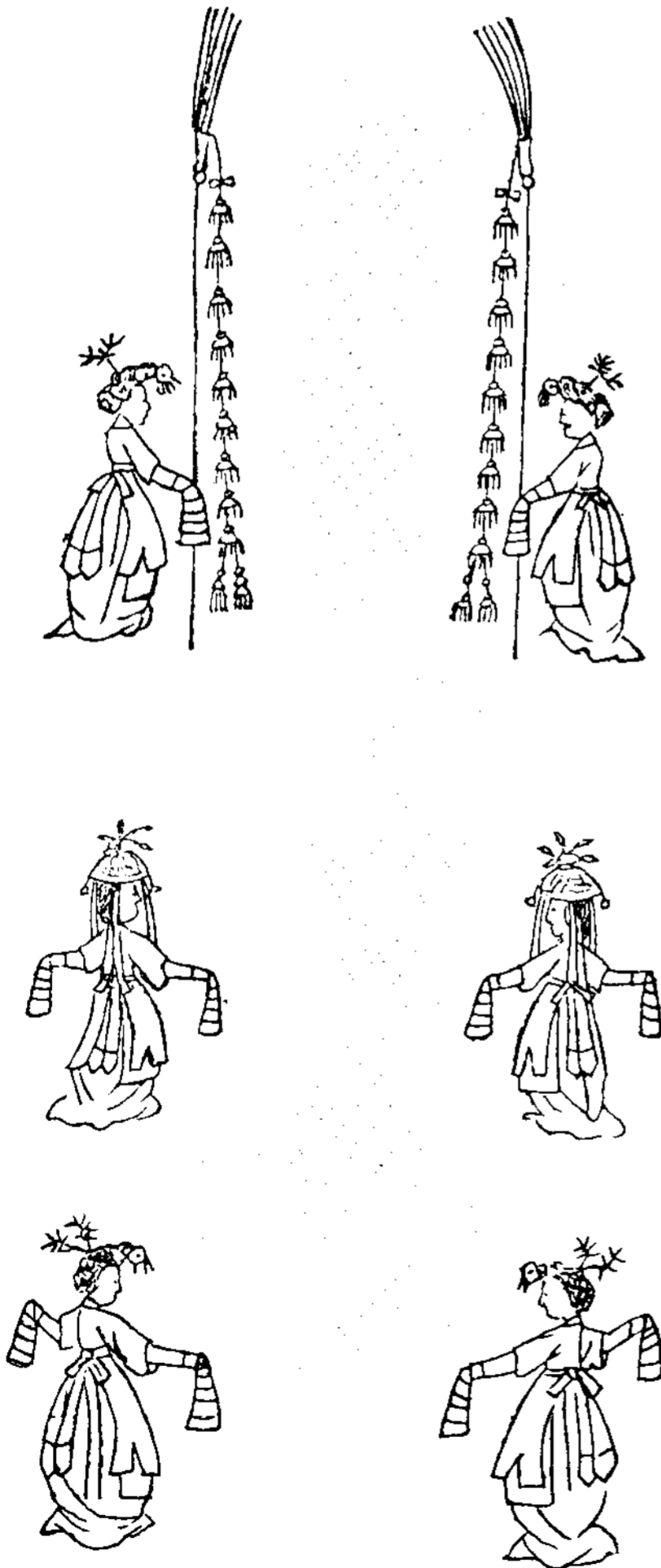
<표 2> 각종 儀軌에 나타난 宮中女舞의 服飾

	冠	服	帶	汗衫	靴鞋	기타
一般女舞服飾	花冠	紅絹裳 黃絹衫(綠絹衫)	繡帶	五色汗衫	草綠鞋	
春鶯囀服飾	花冠	紅絹裳 黃絹衫	紅繡帶	五色汗衫	飛頭履 (繡草鞋)	臂鞞 霞帔
劍器舞服飾	戰笠 (象毛·孔雀羽장식)	金香挾袖 紫的掛子(鴉青掛子)	藍戰帶		草綠鞋	舞劍
船遊樂執事服飾	朱笠 (孔雀羽나) 虎鬚장식)	挾袖 藍紗貼裏	眞紅廣帶		水靴子	筒筒 環刀 藤鞭
舞山香服飾	花冠	紅窄袖衣 草綠掛子	藍戰帶	五色汗衫	紅繡鞋	金訶子
童妓服飾	蛤笠이나 花冠또는 蓮花冠	紅絹襪裙(紅袖襪裙) 紅羅裳 丹衣	金花羅帶	五色汗衫	繡草鞋	流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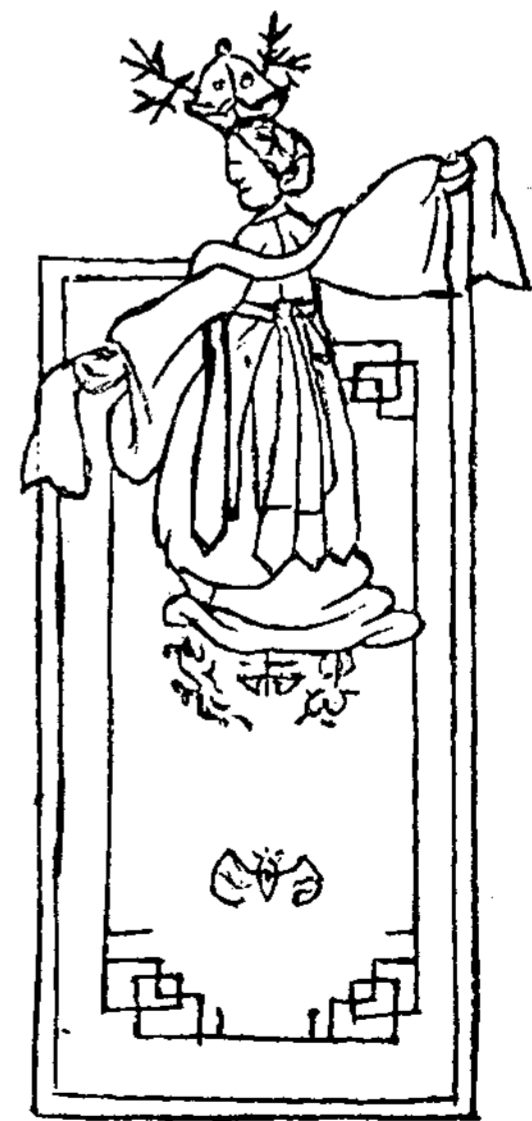
船遊樂의 童妓는 순조 29년에는 蛤笠을 썼으나 그 이후부터는 一般女伶들과 같은 형태의 花冠을 썼으며, 鶴舞의 童妓는 冠을 쓰지 않은 채 머리 뒤의 비녀에 땀기를 걸쳐 늘어뜨렸다.

이들의 髮飾을 보면 平安監司歡迎圖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대로 새앙머리에 비녀를 꽂았으며 비녀 위로 豆錫花簪을 꽂고 있다.

이들 女舞妓들의 服飾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圖 1-1> 蓮花臺舞의 服飾



<圖 1-2> 春鶯囀 服飾

船遊樂



〈圖 1-3〉 劍器舞의 服飾



〈圖 1-5〉 舞山香의 服飾



〈圖 1-4〉 船遊樂의 服飾

2. 服飾別 研究

(1) 冠

1) 花冠

花冠은 이조 후기에 盛勢를 보아 말기까지 盛用한 것으로 일반舞妓와 春鶯囀舞妓, 舞山香舞妓, 그리고 童妓들이 썼다.

순조 29년 진찬에 사용된 일반 舞妓의 花冠에 是 여러가지 장식물을 부착하고 비녀와 首供花 등으로 장식했었으나〈圖 2-1〉, 그후 헌종 14년 부터 사용된 花冠은 다소 간소화된 형태로 변했으며〈圖 2-2〉 여기에 首供花를 꽂아 장식하여 쓴 듯 하다. 이것은 服飾圖에는 首供花가 없으나 呈才圖에는 首供花가 있기 때문이다.

春鶯囀과 舞山香의 花冠은 일반舞妓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화려한 감을 준다. 〈圖 2-3〉 戊申 進饌儀軌를 보면 春鶯囀差備로서 花冠의 재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있다. 즉, 花冠의 재료로는 黑冒羅 1尺 3寸 生布 5尺이 들어가며 여기에 金花紋의 금박을 찍고 豆錫花簪 1개 髻簪 2개를 달고 首供花 4枝를 꽂는데 花冠骨本의 재료는 椶木으로 한다¹⁹⁾라고 있다.

또한 船遊樂의 童妓는 헌종 14년 진연에서부터 花冠을 썼는데 成人舞妓의 것과는 그 형태가 약간 다르며〈圖 2-4〉 여기에 首供花를 꽂아 장식한 듯 하다.

2) 蛤笠

蛤笠〈圖 2-5〉은 순조 29년에는 蓮花臺舞 童妓와 船遊樂 童妓가 모두 썼으나 高宗 14년 高宗 24년에는 蓮花臺舞 童妓만 썼다.

이 蛤笠의 형태는 樂學軌範에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조법도 거의 같았으리라 본다.

樂學軌範에는 「蛤笠은 가는 대로 網을 만들어 종이를 바르고 겉을 藍綃로 싣는다. 또 紅綃로 頂子를 만들고 정자 밑에 홍초 남초로 花筒을 마름질하여 만들어서 붙인다. 4면의 梁²⁰⁾과 邊兒

19) 헌종 戊申(1848), 진찬의례 권3, 악기풍물條

20) 꼭지와 테두리 사이에 도톰하게 마루가 저서 내려온 부분

(테두리)도 홍초로 붙이고 모두 金花紋을 박는다. 안에는 홍초를 바르며 좌우에 金鈴을 달고 안에 홍초로 만든 끈을 달고 모두 金花紋을 박는다²¹⁾라고 있다. 樂學軌範에서는 頂子 밑에 花筒을 붙인다고 했는데 儀軌의 그림에는 頂子 위에 花筒이 붙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蛤笠의 頂子위의 花筒에 꽂혀진 꽃은 首花로서 園行乙卯整理儀軌에 있는 蛤笠의 黃紅薔薇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3) 蓮花冠

蓮花臺舞童妓가 쓰던 蛤笠이 사라지고 고종 광무 5년부터는 蓮花冠이 나타났다. 이 蓮花冠은 오므려진 연꽃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圖 2-6>

4) 戰笠

戰笠은 氈笠이라고도 하는데 「氈」은 毛를 사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劔器舞 服飾의 戰笠에는 붉은 象毛(槩毛)와 孔雀羽, 頂子が 달려 있고, 徵道里가 耳錢으로 고정되어 들려져 있으며 纓子가 달려 있다. <圖

2-7> 이의 재료로는 겉감이 散紅毛, 안감이 藍雲紋緞이고, 頂子是 銀頂子, 徵道里는 純氈으로 만들며 耳錢은 密花로 만들고 纓子是 紫的甲紗로 했다²²⁾고 한다.

이 戰笠은 원래 광해 戊午年(1618)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우리 군사가 요동에 가서 청나라와 싸웠을 때에 戰笠을 쓰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본 받아서 사방으로 번지게 되었다²³⁾고 하는데, 특히 品等이 높은 武官이 쓰는 戰笠은 「안올림 병거지」라 하며 품질이 좋은 毛제품인 孔雀尾·槩毛와 玉鶯를 달고 涼太 안쪽에는 藍色 雲紋緞으로 꾸미고 密花纓을 달았고, 下輩들이 쓰는 戰笠은 「병거지」 또는 「병테기」라 하며 粗雜한 豚毛를 사용하여 만들고 장식도 없었다²⁴⁾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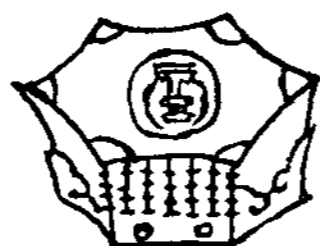
5) 朱笠

朱笠은 일명 朱紗笠 또는 紫笠이라고도 불렀으나 보통은 朱笠으로 통하는데 이것은 戎服차림에 쓰여져 왔다. 文臣 또는 武官의 戎服에는 虎鬚를 꽂고 紅黃色 貝纓을 앞에 드리운 朱笠을 착용하기도 했다²⁵⁾고 하는데 巫堂들이 「굿거리」에 武官服을 입고 朱笠을 쓰는 것은 武官의 위엄으로써 잡귀를 물리친다는 뜻일 것이며 巫堂은 장식이 없는 朱笠을 썼다.

여기 船遊樂執事의 朱笠을 보면 密花貝纓은 모두 달려 있으나 笠飾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순조 29년의 朱笠에는 孔雀羽와 虎鬚가 달



<圖 2-1> 一般舞妓의 花冠 (순조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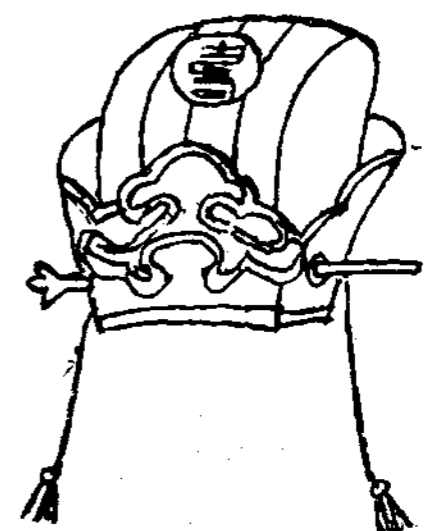


<圖 2-2> 一般舞妓의 花冠



舞山香同

<圖 2-3> 春鶯囀의 花冠



<圖 2-4> 童妓의 花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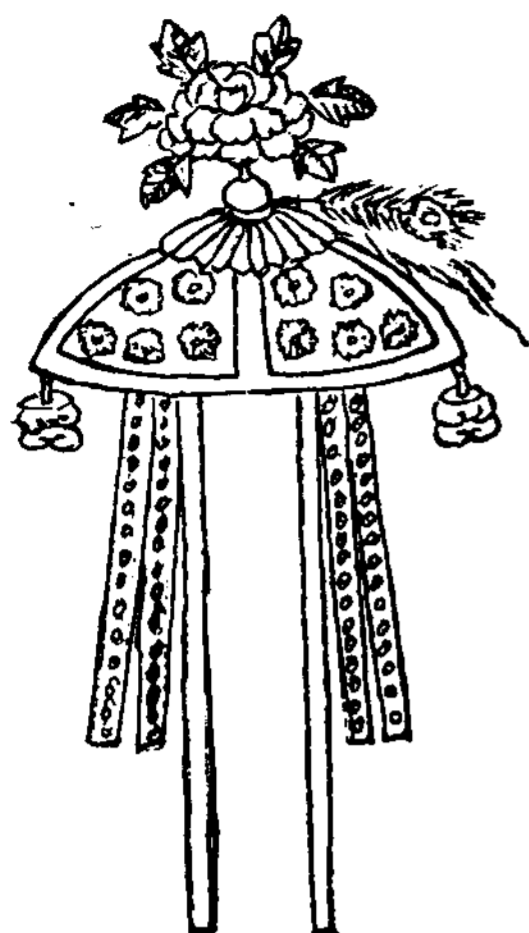
21) 악학계법 권 8, 연화대복식도설條

22) 헌종 戊申, 진찬의궤 권3, 악기풍물條, 고종 광무 壬寅, 진연의궤 권 3, 악악기풍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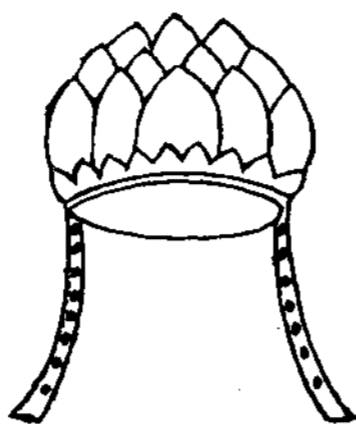
23) 이궁익, 연려실기술 권 13, 政教典故, 관복條

24) 심재완·이은창, 한국의 관모, 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p. 54.

25) 上揭書,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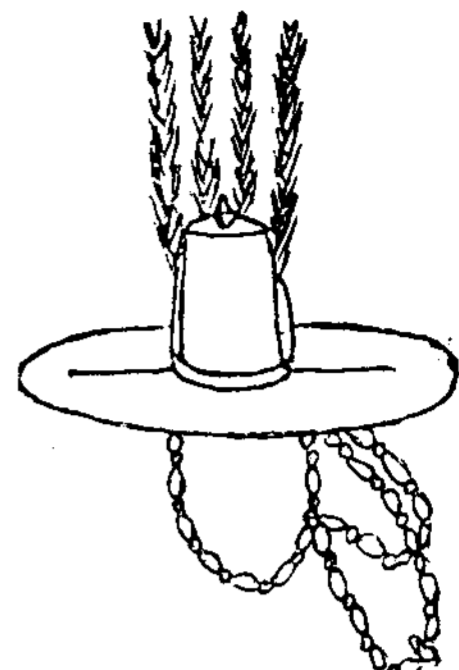
〈圖 2-5〉 蓮花臺舞 童妓의 蛤笠
(순조29, 고종14, 고종24)



〈圖 2-6〉 蓮花臺舞 童妓의 蓮花冠



〈圖 2-7〉 劔器舞의 戰笠



〈圖 2-8〉 船遊樂 執事의 朱笠

려 있고 현종 14년의 것에는 銀笠飾과 虎鬚가 달려 있으며〈圖 2-8〉 고종 5년의 것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고종 14년부터의 것은 모두 현종 14년의 것과 같이 銀笠飾과 虎鬚가 달려 있다.

(2) 服

1) 紅綃裳

紅綃裳〈圖 3-1〉은 일반舞妓들이나 女伶들 뿐만 아니라 春鶯囀에도 입혀졌는데, 裳이란 속칭 甫老라 하여²⁶⁾ 아래에 두르는 것을 말함이니 곧 치마이다.

그러나 치마라고 해서 이것을 妓女의 平服차림으로서의 긴치마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裳은 긴치마를 입은 위로 다시 겹쳐 입는 앞치마와 비슷한 작은 덧치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春鶯囀 差備로서 裳의 재료는 眞紅桃榴紋甲紗三尺²⁷⁾이라 했는데, 이조 때에 가장 많이 常用된 營造尺이 세종 때 31.24cm에서 성종 2년에 31.19cm, 광해군 때 31.07cm, 고종 때 30.59cm, 고종광무 6년 이후에는 30.30cm로 변했다²⁸⁾하므로 3尺이면 1m도 안되는 길이로서 이것 1폭으로 긴치마를 주름잡아 풍성하고

길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裳의 허리끈은 白花甲紗 2尺으로 만들었다²⁹⁾고 한다.

2) 紅羅裳

紅羅裳〈圖 3-2〉은 童妓가 입었는데, 현종 14년 진찬의례에는 裳의 재료로서 紅花紋甲紗를 쓰고 裳의 上端에는 草綠花紋甲紗, 垂纓에는 紅花紋甲紗와 草綠紋甲紗를 쓰고 金花紋의 금박을 적는다³⁰⁾고 있으며, 고종 광무 6년 진연의례에는 紅生綃를 쓰고 上端에는 草綠生綃 垂纓에는 紅生綃와 草綠生綃를 쓰고 허리끈은 紅生綃로 한다³¹⁾고 있다. 또한 樂學軌範에 「裳은 紅羅로 만드는데 바깥에는 金花紋을 박은 紅羅·綠羅의 流蘇를 드리우고 그 上端에는 綠羅를 잇낸다. 허리과 허리끈은 紅羅로 만든다³²⁾」라고 있다.

따라서 의례에 있는 裳과 樂學軌範에 있는 裳은 같은 것이라 하겠고, 垂纓이란 流蘇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 黃綃衫(綠綃衫)

黃綃衫은 일반 舞妓들과 女伶들 뿐만 아니라 春鶯囀에도 입혀졌는데 이들의 형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배래형과 수구가 다르게 보인다.

〈圖 3-3, 3-4〉

衫의 재료로는 걸감으로 眞紅桃榴紋甲紗, 안

26) 악학계법 권 9, 여기복식도설條

27) 戊申 진찬의례 권 3, 악기풍물條, 壬寅 진연의례 권 3, 악기풍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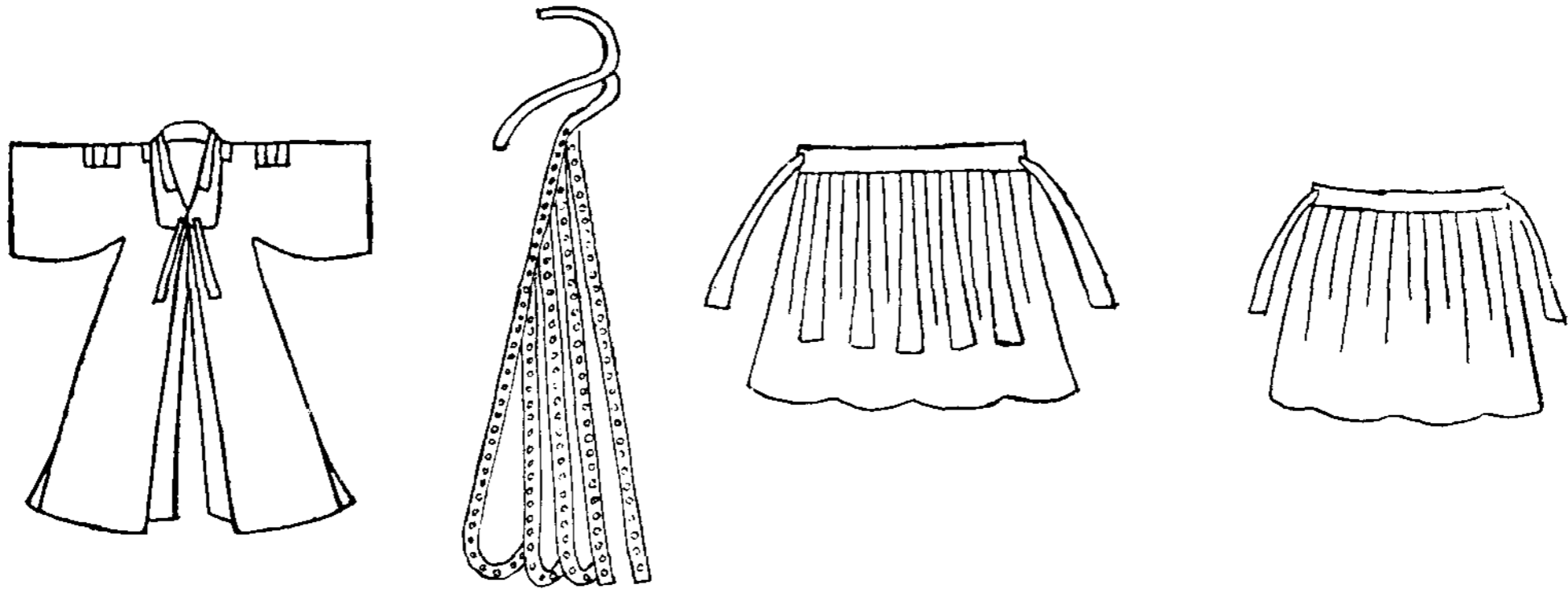
28) 박홍수, 이조 척도에 관한 연구, 大東文化 제 4집, p.70

29) 戊申 진찬의례 권 3, 악기풍물條, 壬寅 진연의례 권 3, 악기풍물條

30) 上揭書

31) 上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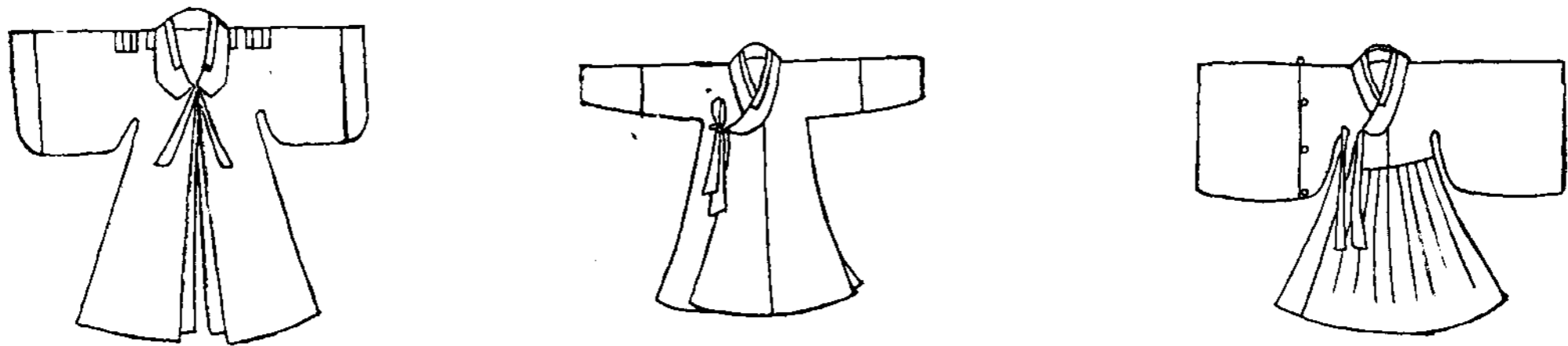
32) 악학계법 권 8, 연화대복식도설條



<圖 3-1> 一般舞妓의 紅綃裳

<圖 3-2> 童妓의 紅羅裳과 流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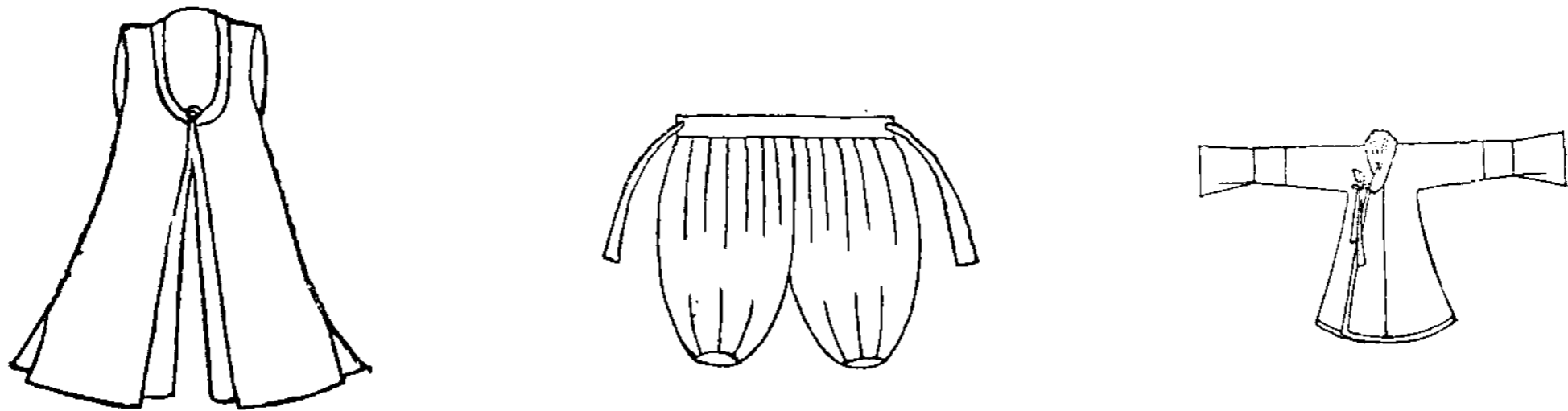
<圖 3-3> 一般舞妓의 黃綃衫



<圖 3-4> 春鶯囀의 黃綃衫

<圖 3-5> 劍器舞의 金香挾袖

<圖 3-6> 船遊樂執事의 貼裏



<圖 3-7> 劍器舞의 鴉青掛子

<圖 3-8> 童妓의 襪裙

<圖 3-9> 童妓의 丹衣(순조29)



<圖 3-10> 童妓의 丹衣

감으로 黃花紋甲紗, 고름감으로 紫的桃樞紋甲紗, 양 어깨의 색동감으로 眞紅草綠紫的甲紗를 사용했다³³⁾고 한다.

이 紅綃衫은 고종 29년 진찬까지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綠綃衫으로 변해서 고종말까지 계속 되고 있다.

4) 挾袖(窄袖衣)

挾袖는 劍器舞와 舞山香의 舞妓, 그리고 船遊樂의 執事가 입었다. 服飾圖에는 船遊樂執事의 服飾에 挾袖가 보이지 않으나 戊申 進饌儀軌 악기·풍물條에는 挾袖가 있으므로 貼裏 속에 挾袖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挾袖<圖 3-5>는 옆이 약간 트인 直領의 窄袖衣로서 服飾圖에는 劍器舞에서 金香挾袖, 舞

33) 戊申 진찬의례 권3, 악기풍물條, 壬寅 진연의례 권3, 악기풍물條

山香에서 紅窄袖衣라 명기되어 있으나 그 형태는 동일하다.

挾袖는 蒙道里라고도 하는데 이의 재료로는 黃花紋甲紗로 하고 수구는 紅鱗紋甲紗로, 깃과 수구는 白花紋甲紗로 한다³⁴⁾라고 있다. 그러나 舞山香에서는 紅窄袖衣라 하므로 형태는 동일하고 色만 다른 듯 하다.

5) 貼裏

貼裏는 天翼이라고도 하며 廣袖이고 허리에 주름이 많이 잡힌 上衣上裳의 옷으로, 續大典에 「堂上三品以上の 戎服은 藍色 貼裏를 착용한다」³⁵⁾고 있듯이 貼裏는 戎服으로 입는 옷이다.

여기서는 船遊樂의 執事가 입고 있는데 특히 오른쪽 소매를 메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단추가 달려 있다. <圖 3-6>

이 貼裏는 藍雲紋甲紗로 만들며 깃은 白禾紬로 만든다³⁶⁾고 있으며, 服飾圖에는 藍紗貼裏로 명시되어 있다.

6) 掛子

掛子は 劔器舞와 舞山香의 舞妓들이 입었다. 掛子は 戰服이라고도 하며 등줄은 길게 트고 옆선은 약간 튼 소매없는 옷을 말한다. <圖 3-7>

劔器舞의 掛子は 순조 29년의 것에 紫的紗掛子, 현종 14년과 고종 5년의 것에 紫的掛子, 고종 14년부터의 것에 鴉青掛子라 있으며, 舞山香의 掛子は 草綠掛子라 있으나 色만 다르고 형태는 동일하다.

이 掛子の 재료는 걸감으로 鴉青鱗紋甲紗, 안감으로 紅鱗紋甲紗로 한다³⁷⁾고 있다.

7) 紅綃襪裙(紅紬襪裙)

襪裙은 통이 넓은 바지의 형태로 童妓가 입었다. <圖 3-8> 樂學軌範에 있는 襪裙에는 허리끈 외에 어깨에 걸치는 끈이 있으나³⁸⁾ 여기의 襪裙에는 허리끈만 달려 있다.

고종 5년까지의 것에는 紅綃襪裙이라 하여 紅生綃로 만들고 허리끈은 白生綃로 만들었고,³⁹⁾ 고종 14년부터의 것에는 紅紬襪裙이라 하여 眞紅禾紬로 만들고 허리끈은 白禾紬로 만들었다⁴⁰⁾ 한다.

8) 丹衣

丹衣는 童妓가 입었는데 순조 29년 것에 있는 丹衣는 直領으로서 동정 고름이 달려 있으며 소매끝에는 汗衫이 달려 있고 앞뒤의 길이가 같은 형태이었으나<圖 3-9> 그 이후의 것에는 모두 團領으로서 소매끝의 汗衫이 없어지고 2색의 색동이 수구와 겨드랑이에 붙여져 있으며 앞이 짧고 뒤가 길어졌는데 보통 團領의 옷에는 고름이 없으나 여기에는 고름이 달려 있다.<圖 3-10>

현종 14년의 丹衣는 걸은 草綠花紋甲紗로, 안은 黃生綃로 만들었고 團領은 紅花紋甲紗로, 좌우挾과 袖口의 색동은 紅花紋甲紗와 白花紋甲紗로 했다⁴¹⁾고 하며, 고종 광무 6년의 丹衣는 걸은 草綠生綃로, 안은 紅生綃로 만들었고, 깃은 紅生綃로, 색동은 紅生綃와 白生綃로 했다⁴²⁾고 한다.

樂學軌範의 丹衣는 紅羅로 하고 색동은 綠羅와 白羅로 했다⁴³⁾고 하는데, 이를 비교하면 紅色과 綠色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다.

3. 帶

1) 繡帶

繡帶는 일반 舞妓들과 春鶯囀에 입혀졌는데 특히 春鶯囀 服飾圖에는 紅繡帶라 명시되어 있다.

繡帶에는 금박을 찍었는데 一般舞妓의 것을 보면 순조 29년 것에는 壽福紋의 금박을<圖 4-1>, 현종 14년부터의 것에는 花紋의 금박을 찍었으며<圖 4-2>, 春鶯囀의 것은 순조 29년부터 계속<圖 4-2>와 같은 花紋의 금박을 찍었다.

34) 上揭書

35) 續大典, 禮典, 儀章條

36) 戊申 진찬의궤 권 3, 악기풍물條

37) 壬寅 진연의궤 권 3, 악기풍물條

38) 악학계법 권 8, 연화대무복식도설條, 권 9, 여기복식도설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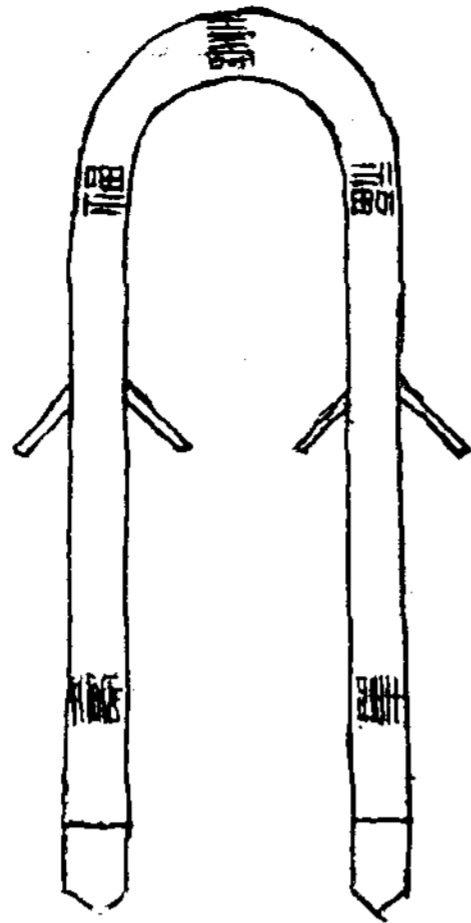
39) 戊申 진찬의궤 권 3, 악기풍물條

40) 壬寅 진연의궤 권 3, 악기풍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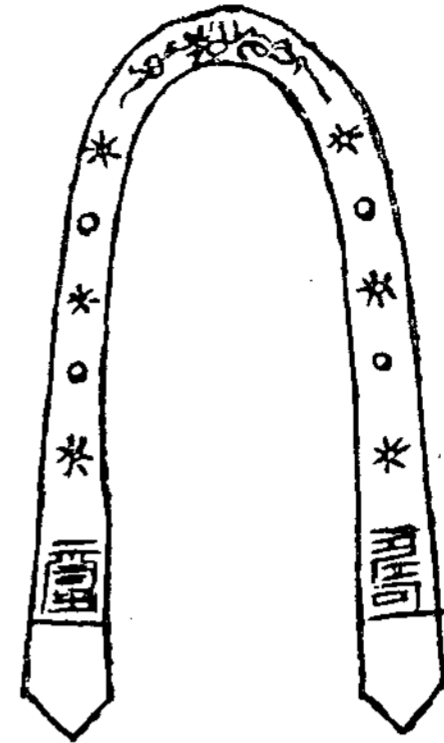
41) 戊申 진찬의궤 권 3, 악기풍물條

42) 壬寅 진연의궤 권 3, 악기풍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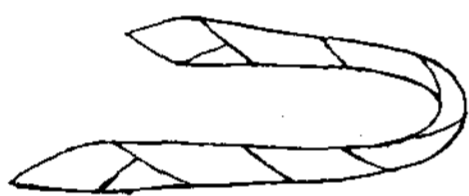
43) 악학계법 권 8, 연화대복식도설條



〈圖 4-1〉 一般舞妓의 繡帶(순조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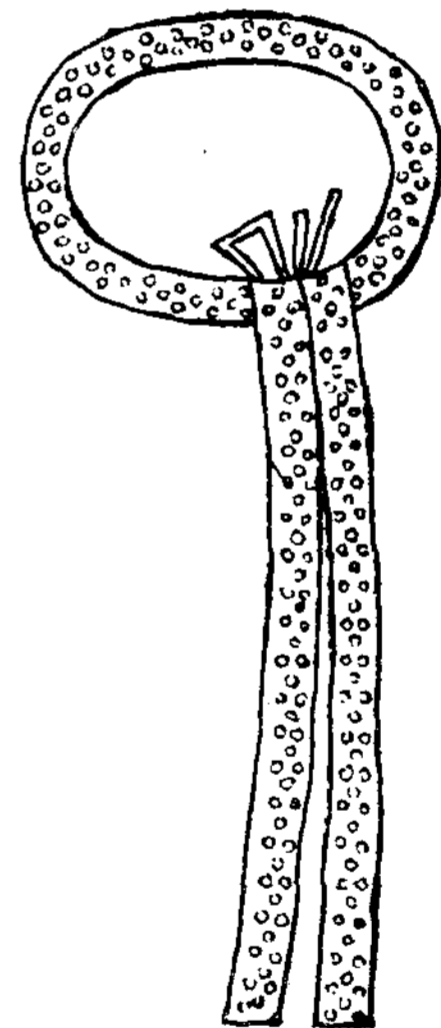
〈圖 4-2〉 一般舞妓의 繡帶



〈圖 4-3〉 劔器舞의 戰帶



〈圖 4-4〉 船遊樂執事의 紅廣帶



〈圖 4-5〉 童妓의 金花羅帶

春鶯囀 差備로서의 繡帶의 재료로는 眞紅佛手 緞길이 6尺 폭 4寸에다 兩端에 붙일 草綠佛手緞 4寸씩 2개가 필요했다⁴⁴⁾고 한다.

2) 藍戰帶

戰帶〈圖 4-3〉는 劔器舞와 舞山香의 舞妓가 掛子를 입은 위로 떠는 帶로서 藍鱗紋甲紗로 만들었다⁴⁵⁾고 한다.

戰帶는 纏帶라고도 하며 길이 8尺 폭 3寸 5分⁴⁶⁾되게 만들고 양쪽끝을 터놓고 삼각형이 되게 하여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고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하는 것으로서 戰服에 떠다는 뜻에서 戰帶라고 한다.

3) 眞紅廣帶

眞紅廣帶〈圖 4-4〉는 貼裏 위에 떠는 넓은 帶로서 紅廣多繪帶라고도 하며 舞妓 중에서는 船遊樂의 執事가 떠었다. 원래 帶의 色은 文武

官의 品位에 따라 달리하였고 品位가 높을수록 紅色을 사용했다⁴⁷⁾고 한다.

4) 金花羅帶

金花羅帶〈圖 4-5〉는 童妓가 丹衣 위에 떠는 帶인데 紅貢緞으로 만들며 金花紋의 금박을 찍고

44) 戊申 진찬의례 권 3, 악기풍물條

45) 上揭書

46) 上揭書

47) 석주선, 한국복식사, 寶晉齋, 1978, p. 562.

紅貢緞으로 만든 纓子を 달았다⁴⁸⁾고 하여 보통 繡帶라고도 하나 一般舞妓들이 하는 繡帶와는 형태가 다르다.

4. 靴鞋

1) 鞋

鞋에 있어서 일반舞妓와 劔器舞에서는 草綠鞋 <圖 5-1>, 春鶯囀에서는 飛頭履 <圖 5-2>, 舞山香에서는 紅繡鞋, 그리고 童妓는 繡草鞋를 신었다고 服飾圖에 나타나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色과 繡의 도안만이 다를 뿐이다.

草綠鞋는 草綠貢緞으로 만들고 紅繡鞋와 飛頭履와 繡草鞋는 모두 紅貢緞으로 만들었다⁴⁹⁾한다.

여기서 飛頭履는 繡草鞋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鞋의 코부분의 장식이 날아갈 듯한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헌종 14년과 고종 5년의 것에 있는 童妓의 繡草鞋와 舞山香 舞妓의 紅繡鞋 <圖 5-3>에는 끈이 달려 있어 발등에서 묶어 신었는 듯 하다.

2) 水靴子

水靴子 <圖 5-4>는 戎服차림에 신는 신발로서 여기서는 貼裏를 입은 船遊樂의 執事가 신었다. 이것은 黑貢緞으로 만들어 黑靴子라고도 부른다.

5. 기타

1) 五色汗衫

五色汗衫 <圖 6-1>은 一般舞妓, 春鶯囀과 舞山香의 舞妓, 그리고 童妓들이 사용했다.

汗衫은 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구에 다는 경우가 있고 따로 만들어 손에 끼우는 경우가 있겠다.

순조 28년에 舞童이 입은 白單衣나 草綠挾袖에는 汗衫이 수구에 달려 있으나 여기에서의 汗衫은 따로 만들어 끼우도록 되어 있다.

五色汗衫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五色이란 赤·黃·靑·白·黑의 색을 말하지만 이때의 五色汗衫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때에 따라 玉色만을 쓰거나 紅色만을 쓰거나 또는 여러가지 색을 같이 쓰거나 해도 모두 五色汗衫이라 부른 듯 하다. 그리고 汗衫위에는 끈을 달아 손목에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戊申 진찬의궤에는 佳人剪牡丹의 汗衫과 끈의 재료로 玉色禾紬를 쓰고, 響鈴舞의 汗衫과 끈의 재료로는 紅禾紬를 쓰며, 春鶯囀에는 汗衫에 五色甲紗를 쓰고 끈은 藍多繪를 쓴다⁵⁰⁾고 했으면서 服飾圖에는 모두 五色汗衫이라 있는 것에서 입증해 준다.

2) 臂鞆

臂鞆 <圖 6-2>란 팔찌와 비슷한 것으로서 양 손목에 두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樂學軌範에는 다듬은 흰 명주로 꿰매어 만들고 錦紋을 그리며 안은 홍색 명주를 쓰고 안에는 양털 氈을 붙이며 네 모퉁이에 홍색 명주 끈을 단다⁵¹⁾라고 있다.

또한 戊申 進饌儀軌에는 臂鞆 1쌍에 안감으로 藍大緞 걸감으로 紅貢緞이 각각 5寸, 繡畫감으로 草綠藍白貢緞이 각각 4寸, 纓子감으로 藍多會가 2件이 들어간다⁵²⁾라고 있다.

이 臂鞆는 樂學軌範에는 雅樂의 鐔·鐸·鏡·鐸·應·雅·相·牘 등을 잡는 工人이 착용한다⁵³⁾고 했으나 여기서 보면 春鶯囀 舞妓는 고종 말까지 계속 착용했다.

3) 霞帔

春鶯囀 舞妓가 두른 霞帔 <圖 6-3>는 新羅女服의 袂와 같고 高麗의 勒巾과 같으며 處容舞服중 天衣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平安監司 歡迎圖에서도 보면 蓮花臺舞服에 이 霞帔를 양 어깨에 걸쳐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⁵⁴⁾

이와같이 霞帔는 목에 걸쳐 양 어깨를 지나 衣의 끝자락까지 내려뜨리고 그 위에 帶를 띠어

48) 壬寅 진연의궤 권 3, 악기풍물條

49) 戊申 진찬의궤 권 3, 악기풍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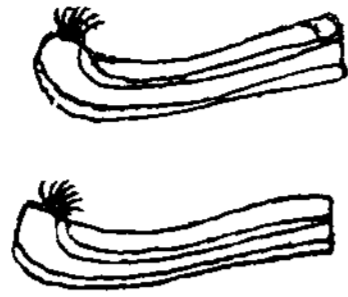
50) 上揭書

51) 악학궤범 권 9, 관복도설條

52) 戊申 진찬의궤 권 3, 악기풍물條

53) 악학궤범 권 9, 관복도설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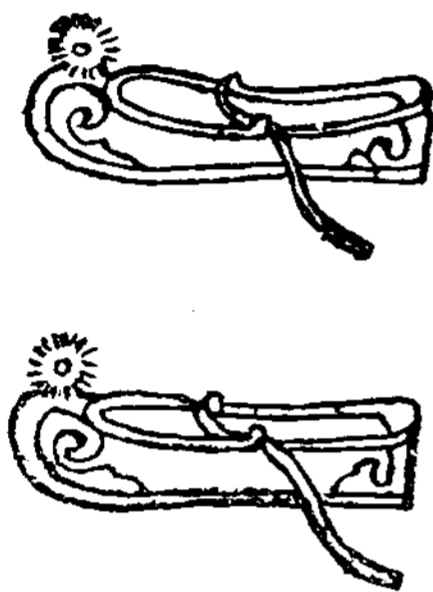
54) 이주원, 前揭書,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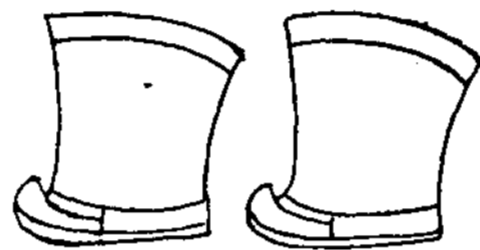
<圖 5-1> 一般舞妓와 劍器舞의 草綠鞋



<圖 5-2> 春鶯囀의 飛頭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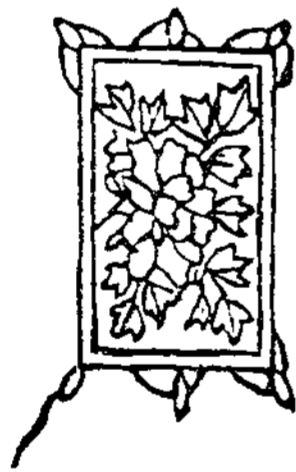
<圖 5-3> 舞山香의 紅繡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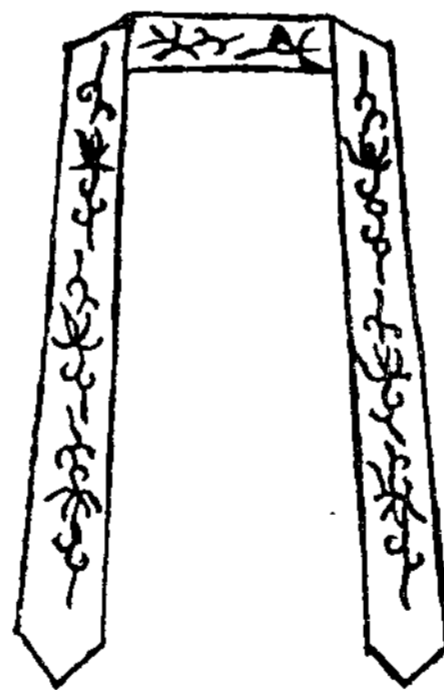
<圖 5-4> 船遊樂執事의 水靴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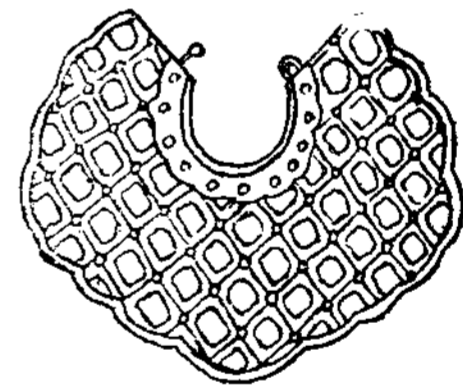
<圖 6-1> 五色汗衫



<圖 6-2> 春鶯囀의 臂鞵



<圖 6-3> 春鶯囀의 霞帔



<圖 6-4> 舞山香의 金訶子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肩帶라 하겠다.

이의 재료는 草綠佛手緞으로 길이 6尺 5寸 폭 4寸이 들어갔다⁵⁵⁾고 한다.

4) 金訶子

舞山香의 舞妓는 紅窄袖衣와 草綠掛子를 입은 후 목에 金訶子를 들렀는데 마치 케이프와 같은 형태로서 목 뒤에서 단추를 끼워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모든 舞妓들은 身分的으로 八賤의 하나였으나 服飾禁制에서는 벗어나 兩班의 婦女와 같이 紗羅綾緞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비단 신도 신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것은 궁중 무용이 왕을 중심으로 王侯將相들의 琬賞用으로 추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55) 戊申 진찬의례 권 3, 악기풍물條

IV. 結 言

이상에서 李朝 後期 宮中女舞 32개의 服飾과 童妓의 服飾에 대해 舞踊別로 간단히 연구한 후 여기에 나와 있는 服飾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純祖 이후의 여러 進饌·進宴儀軌를 택해서 보다 확실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몇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春鶯囀에는 花冠을 쓰고 紅綃裳과 黃綃衫을 입은 위로 紅繡帶를 띠고, 손목에는 臂鞲를 차고 어깨에는 霞帔를 들렀으며 五色汗衫을 끼고 飛頭履를 신었다.

2) 劍器舞에는 象毛와 孔雀羽 장식이 된 戰笠에 挾袖와 掛子を 입은 위로 藍戰帶를 띠고 草綠鞋를 신었다.

3) 船遊樂 執事は 孔雀羽나 虎鬚장식이 된 朱笠에 挾袖와 貼裏를 입고 眞紅廣帶를 띠었으며 水靴子를 신고 筒箇와 環刀와 藤鞭을 가졌다.

4) 舞山香에는 花冠에 紅窄袖衣와 草綠掛子を 입고 金訶子を 두르고 藍戰帶를 띠었으며 紅繡鞋를 신고 五色汗衫을 끼었다.

5) 그외의 모든 舞妓들은 花冠에 紅綃裳과 黃綃衫(綠綃衫)을 입고 繡帶를 띠었으며 草綠鞋를 신었고 五色汗衫을 끼었다.

6) 童妓는 蛤笠이나 花冠 또는 蓮花冠을 쓰고 紅綃襪裙과 紅羅裳과 流蘇와 丹衣를 입었으며 金花羅帶를 띠고 繡草鞋를 신고 五色汗衫을 끼었다.

7) 紅綃裳이란 긴치마 위로 다시 겹쳐 입는 앞치마와 비슷한 작은 덧치마라 하겠다.

8) 挾袖는 蒙道里라고도 하며 옆이 약간 트인 直領의 窄袖衣로서 掛子나 貼裏 속에 입었다.

9) 船遊樂 執事の 貼裏는 오른쪽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단추를 달았다.

10) 童妓들이 입었던 丹衣는 순조 29년에는 直領으로서 소매끝에 汗衫이 달려 있고 앞뒤의 길이가 같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團領으로서 소매끝의 汗衫이 없어지고 색동이 붙여졌으며 앞이 짧고 뒤가 길어졌으며 고름이 달려 있었다.

11) 모든 舞妓들은 身分적으로는 賤人이었으나 兩班의 婦女와 같이 비단옷을 입고 비단신도 신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宮中女舞服에 관한 하나의 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純祖 戊子 進爵儀軌
- 純祖 己丑 進饌儀軌
- 憲宗 戊申 進饌儀軌
- 高宗 戊辰 進饌儀軌
- 高宗 丁丑 進饌儀軌
- 高宗 丁亥 進饌儀軌
- 高宗 壬辰 進饌儀軌
- 高宗 光武 辛丑 進饌儀軌
- 高宗 光武 辛丑 進宴儀軌
- 高宗 光武 壬寅 進宴儀軌
- 純祖 己巳 蕙慶宮行饌儀軌
- 純祖 丁亥 進爵正禮儀軌
- 呈才舞圖笏記
- 樂學軌範
- 續大典
- 園行乙卯整理儀軌

김은이, 조선궁중정재복식과 의물에 관한연구, 무용한국 11권 5호, 1978.

- 朴興秀,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 제 4 집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78.
成慶麟, 韓國傳統舞踊, 一志社, 1979.
沈載完·李殷昌, 韓國의 冠帽, 영남대 신라가야문화연구소, 1972.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築學會誌 19권 63호, 197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3.
李柱媛, 平安監司歡迎圖의 服飾 考察, 服飾 4호, 1981.
韓玉姬, 조선궁중정재에 관한 연구, 무용한국 12권 6호, 1979.